

# 질투는 파멸을 부른다

유 회 현 · 유회현 산부인과 원장

**결** 혼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그녀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한계가 정해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그만 한방 찻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는 찻집 근방의 한의원 원장이었다. 한방 찻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곧잘 한의원에 찾아가 한방 차에 들어가는 재료를 구하기도 했고 그 남자도 좋아하는 차가 있어 찻집에 자주 들르곤 했다. 그녀는 그렇게 그 남자를 알게 되었다.

여자는 이혼해서 혼자된 지 3년쯤 되었고, 딸 하나를 키우며 이 찻집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해 나갔다. 아직은 지적인 외모에 화술이 뛰어나 근처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특히 대화를 하면 상대방 마음을 꿰뚫어 보고 나그나긋하게 상대가 되어 주니 사회생활의 스트레스에 집에서의 무거운 짐을 이 여성에게 털어놓고 나면, 이상하리만큼 한결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끼게 되고 편안해졌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여러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하였으나 지독한 사랑을 끝낸 직후라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남자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아픈 가슴을 추스르고 나서는, 다시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랑은 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던 그녀였다.

그러나 새로운 사랑은 다시 찾아 들기 시작했다. 어딘지 헤어 진 남자와 비슷한 분위기에 수려한 외모는 다시 그녀의 가슴에 불꽃을 지피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다. 아직도 옛되어 보이고 아름다운 부인이다 아들딸을 두었고 한의원도 나날이 번성했다. 가끔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에게 들르곤 할 때마다 다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다.

그 남자의 성격도 다정다감한 편이고, 매사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과 어느 정도의 감성이 있는 듯 하며, 패션 감각도 뛰어나 언제나 깔끔한 분위기의 멋을 풍겼다. 그녀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그녀에게 식사 초대를 해 왔다. 아내가 친정 일로 아이들을 데리고 며칠 다녀오기로 하고 친정에 갔노라며 식사나 하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감격해 그녀는 어쩔 줄을 몰랐다.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고 고통 속에 살면서 즐거움이나 기쁨이 정지된 채 살고 있던 그녀의 가슴에 화롯불이 활활 타는 기분이었다. 저녁 식사까지는 여러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최고로 멋을 부려 보았다. 사우나에 마사지가 지 받고, 오랜만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고, 입을 기회가 없어 아끼고 있던 화려한 옷을 꺼내 입었다. 오랜만의

외출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앞뒤로 둘러보았다.

그녀 자신도 놀라웠다. 자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인 줄 미처 몰랐다. 그녀를 본 그 남자는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조촐한 경양식 집의 분위기는 두 사람의 무드를 한층 더해 주었다.

“아름다운 여인이다 생각은 항상 해 왔지만 오늘처럼 아름다운 여인인 줄은 몰랐네요”

그 남자는 여러 번 감격스럽게 칭찬을 하였다. 그녀도 그날만은 최고의 여인이 되어 있는 듯 하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졌다. 전보다 자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랑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보기보다 퍽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는 두 살 연하였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이 무척 젊고 의젓하였다.

그녀는 남자에게 점점 깊숙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관계였지만 여자는 그 남자의 행복한 가정 생활에 질투가 나기 시작했다. 토요일이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와서 다정하게 외출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가슴이 뛰고 어쩔 줄을 몰랐다. 속으로는 그런 감정을 누르려고 애써 보지만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였다.

여자를 가장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은 남자가 태연하게 아내 자랑 아이 자랑을 하고 처갓집 이야기를 할 때였다. 한마디로 불이 활활 타는 것 같고 감정 처리가 힘들었다. 남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언젠가 자신을 버릴 것만 같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가까워지지는 커녕 그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가오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니 그 열정이 점점 식어 가는 듯 했다.

그런 느낌은 대화 중에도, 행동에서도, 관심에서도 예전 보다는 많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럴수록 그녀는 광적으로 그를 관리하려고 하고 체크하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많이

내고 사소한 일에도 광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이제 이 여자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 다시 사랑의 패배자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녀는 하소연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세상살이 중에 가장 큰 고통이네요”

그녀는 고통 속에 함몰되어 있는 듯 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시작하고 어느 만큼의 시간이 흐르면 열정은 점점 식어 미온적이 되고, 안정기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서로의 사랑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더불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것 같다.

모든 세상사가 다 그렇듯 뜨거움이 있으면 차가움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다고 생각되었을 때 아무 것도 소유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들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사랑의 한계가 그들의 사랑이 더 발전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약간의 질투는 양념과 같아서 가끔은 사랑에 모닥불이 되어 주기도 한다. 또 진정한 사랑에는 질투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질투가 심해지면 사랑이 깨지고 가공할 힘을 발휘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았다.

질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그 사랑을 못 믿고 간섭하려 하며 그 사랑을 잃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출발한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질투라는 감정을 일으켜 사랑을 방해한다. 상대방을 관리하려고 시도 할 때부터가 괴로움의 시작이다.

상대방을 조종하고 강요하려고 한다면 서로간의 불신과 괴로움이 시작된다. 사랑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퇴보한다. 사랑이란 서로 신뢰하며, 서로 존경하며, 모자람도 감싸줄 수 있으며, 서로 공유하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싹트지 않을까.

성숙한 사랑을 이루려면 서로가 동등한 관계에서 마음을 열고 지속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이나 구조해 주는 관계가 아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남녀는 진정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다.

멋진 사랑을 만들어 가는 것은 두 사람에게 달렸다. 사랑에 있어 질투라는 감정만큼 복잡하고 오묘한 감정 상태도 없다. 사랑과 질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양념 정도의 질투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지나친 질투에 사로잡히면 이미 이별이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02-3444-0318) 